



도원 스님의 불교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있는 청각장애아들.

# “절에 오니 잘 들리네요”

## 청각 장애아·학부모 70여명 불교체험

“불교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어요. 처음 접해본 수화노래도 재미있었어요.”

통도사 옥련암에서 열린 청각장애아와 학부모를 위한 불교체험캠프에 온 유정(경남정미대)이는 절에서 보낸 시간이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7월

10~11일 청각장애아 통합학부모(회) 장 전집순)에서 연 불교체험캠프에는 유정이처럼 청각 장애를 가진 유치부,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영 통합학부모회 총무는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이번 캠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청각

장애 극복을 위한 언어, 발음 등에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들었던 강의와는 차별화 되는 도원 스님의 특강과 명상, 수화노래 배우기, 산행,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람 등 프로그램도 풍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수화 노래 배우기와 명상, 평소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로서 손가락 모양으로 의사

### 1박2일 통도사 옥련암서 명상·수화 노래 부르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만끽

소통을 하는 아이들이 함께 참석한 장면(성전초 2)이 절에서의 생활이 새롭기만 하다.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찾은 학부모들의 마음도 흡족하다. 청각 장애아를 위한 법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절에 가본 아이들이 극히 드문 상황. 따라서 절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부이고 새로운 체험이 되었다.

이은영 통합학부모회 총무는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이번 캠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청각

장애 극복을 위한 언어, 발음 등에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들었던 강의와는 차별화 되는 도원 스님의 특강과 명상, 수화노래 배우기, 산행,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람 등 프로그램도 풍부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수화 노래 배우기와 명상, 평소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로 의사소통을 하는 아이들로서 손가락 모양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아이들이 함께 참석한 장면(성전초 2)이 절에서의 생활이 새롭기만 하다.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찾은 학부모들의 마음도 흡족하다. 청각 장애아를 위한 법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절에 가본 아이들이 극히 드문 상황. 따라서 절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아이들에게 공부이고 새로운 체험이 되었다.

이은영 통합학부모회 총무는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이번 캠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청각

장애 극복을 위한 언어, 발음 등에 관련된 전문 강사를 초빙해 들었던 강의와는 차별화 되는 도원 스님의 특강과 명상, 수화노래 배우기, 산행,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람 등 프로그램도 풍부했다.

# 임휴사 대응전 전소



화재로 소실된 임휴사 대응전 전경.

과 탕화 등이 소실됐으며, 삼성각으로 불이 옮겨 붙은 상태였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할 당시 대응전에서 촬영된 CCTV 녹화 화면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CCTV 녹화 화면에는 화재 직전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대응전을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과 법당에서 불길이 솟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 12일, 삼성각도... 방화 추정

### CCTV 녹화 화면 정밀판독 의뢰

7월 12일 새벽 1시 38분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앞산 임휴사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응전과 삼성각이 모두 불타고 1시간만에 진화했다.

대구 달서구 소방서는 1시 53분 경 화재 발생신고를 받고 2시경 소방차 19대 70명의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응전 전체가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삼촌불

## 14일 대구 달서경찰서 이형식 반장은 “CCTV 녹화화면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판독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임휴사(臨休寺)는 신라 경명왕 5년(921년) 영조대사(靈照大師)가 창건하고 1811년(순조11년)에 무주선사가 중창한 전통사찰이다. 화재로 전소된 임휴사 대응전은 45평 10여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2001년 준공한 신축건물이다.

배지선 기자 jsuri@buddhapia.com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초청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지도자 22명이 7월 9일 범어사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 경봉 스님 열반 22주기 영정 봉안



경봉 스님 영정.

양산 통도사 극락암(갑림 명정)은 7월 14일 경봉 스님 열반 22주기 기념법회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열반 22주기 추모법회는 조계종 원로회 의의장 종산 스님, 원로의원 천운 스님, 원로의원 원명 스님, 원로의원이자 경봉문도회 대표인 성수 스님을 비롯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이 주석하셨던 삼소굴에 경

## 원광대 김범수 교수 제작 장학회·3곳 선원에 장학금

봉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는 봉안식을 함께 가져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제작된 영정은 전통 석채와 기법에 의한 인물화 제작에 뛰어난 김범수 원광대 교수에 의해, 7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경봉 스님의 영정은 가로 115cm 세로 150cm로 천연석채와 금니 먹을 써서 제작됐다.

명정 스님은 영정 봉안 경과보고에서 “법제자나 제가 신도들이 스승의 모습을 통해 수행의 경계를 삼고 위안을 얻으며 결속을 다지기 위해 스승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영정을 모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법회에서는 경봉 스님의 육성법문, 종산 스님의 경봉 스님 회고 등에 이어 경봉 스님이 직접 설립한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박사1명, 석사5명, 학사22명과 3곳의 선원 등에 3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천미희 기자

## 삼성 SDI 한마음봉사회

### 통도사 자비원서 자원봉사

통도사자비원(원장 오심)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 삼성SDI 한마음봉사회 31명의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외출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

통도사자비원 요양시설, 양로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 33명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의 7명 어르신들은 통도사자비원 직원, 삼성SDI 한마음봉사회 봉사자들의 손을 잡고 오랜만의 외출에 나섰다.

온천을 찾아 뜨거운 온천물에 온 몸을 담그고 묶은 때를 말끔히 씻은 뒤 점심공양까지 마치고 나자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이 피어올랐다.

“아휴, 너무 개운해. 샤워만 하다가 온천에 와서 몸도 담그고 또 봉사자들이 목욕도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 아들처럼 딸처럼 어르신들과의 외출에서 잔심부름을 도맡았던 봉사자들은 피곤을 잊은 채 다음 외출을 약속하며, 봉사를 마무리했다.

천미희 기자

## “재판기간중 공사중지” 촉구

도농농 소송 항고심 2차 심리가 7월 12일 부산고법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 주재로 열린 이날

심리에는 KBS환경스페셜 ‘다시 쓰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작했던 최영수 부산KBS PD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드러난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원고 당사자인 지을 스님이 참고인 진술에 나서 재판 진행 기간동안 공사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조계종 총정지역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15일 결의문을 통해 “천성산 공사구간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천미희 기자

## 대구교도소 재소자 수계식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대구교도소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불자들이 오계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9교구 본사 동화사는 13일 부주지 진담 스님을 계사로 교무, 포교, 재무, 사회국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0명의 불자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를 대구교도소내 광명사에서 봉행했다.

진담 스님은 이 자리에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계는 등불과 같고 배와 같다”면서 “5계를 수지해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면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지선 기자

# 불 제 1차 구오사미수계(驅烏沙彌受戒) 봉행

구오사미(驅烏沙彌)란 절의 음식을 나르거나 마당에 널어놓은 곡식을 보고 날아드는 까마귀를 쫓던 어린 행자가 사미신계를 받아 비로서 사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종헌종법에 의하면 수계득도 연령이 18세~45세이고 수계산림도 늦가을에 4주간 반계되어 있어 일반학생행자나 사찰에서 보육하는 학생행자들은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계식에만 참석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보완코자 용화사에서 각 사찰에서 보육하는 어린행자나 일반학생행자를 위해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수계산림을 가져 어릴적부터 불심인연을 심코자 구오사미 수계식을 처음으로 봉행코자 하오니 종단 산하 대덕스님들께서 양지하시어 많은 동참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 목 적: 첫째, 어려서부터 승려상의 인연을 심기 위함이며 둘째, 우리 종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며 셋째, 불교발전을 위함입니다.
- 나. 교육내용: 일상 사찰생활 익히고, 조식 예불하기 한글전수경 및 예불·정근·발원문·축원익히기 레크레이션·찬불가·찬불동요·물놀이 인터넷에 카페 만들어 정보교환 주고받기
- 다. 수계기간: 2004년 8월 1일 ~ 8월 7일(1주일)
- 라. 접수처: 총무원 및 각 교구본사 및 담양 용화사
- 마. 대 상: 7세 ~ 17세의 각사암 학생 행자
- 바. 개설서류: 총무원지정 행자등록서류 및 증명사진 3장
- 사. 준 비 물: 장삼, 발우, 작은 목탁, 작은 108염주, 필기구 및 세면 도구, 가사 (가사는 용화사에서 행자의 신장 크기에 맞추어 제작 수여)
- 아. 참가비용: 교육비 30만원(교재 및 가사 비용 포함)
- 가. 일 정 표: 8월 1일 오후 2시까지 집결, 오후 5시 서류접수완료, 오후 6시 처음 발우공양 배우기
- ※ 8월 5일 오전 10시 사미수계식 (수계를 미리 시키는 이유는 수련기간 동안 가사 장삼 수하는 법을 익혀주기 위함임)
- 가. 미래의 계획: 매 방학마다 일정기간동안 수련회를 통해 자질향상 프로그램 진행 예정
- 가. 특 전: 종헌종법의 표용을 살리어 18세가 되었을 때 본종에서 실시하는 구족계 수계와 동시에 사미수계 연도 입적과 승적취득
- 타. 수계장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남산리 용화사 아일다 율원 (담양 티미널 옆 신축 금강아파트 쪽으로 들어옴)
- 전화 (061)381-2683, 2724 팩스 (061)381-2747 홈페이지: 담양용화사 또는 www.yonghwasa.org

## 담양 용화사 아일다 율원장 수진 합장